

제1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여성, 욕망, 말하다

기간 : 2003. 6. 2 ~ 6. 5

특별전 Drag King 퍼포먼스 - by 나비

- 6월 5일 목요일 오후 12시 50분 / 백양로 삼거리

공연 여성, 욕망, 이루다 - by Feminance

- 6월 3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 위당관 B09호

영화 분노를 터뜨려라! 트라이브 8밴드에 관한 다큐멘터리

Rise Above : The Tribe 8 Documentary / Tracy Flannigan / 미국 / 2002년 / 80분

★ 2003년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 상영작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여성 동성애자들로 구성된 다이크 트라이브 8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골적인 성적 퍼포먼스 및 노래 가사가 주를 이루는 트라이브 8의 공연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은 한 여성 영상작가가 그들의 신념을 깨닫기 위해 무려 4년 동안 카메라를 돌린 결과물이다. 영화는 트라이브 8의 공연 실행과 이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멤버 개인적 및 단체적 구성과정에 있으며, 성적 이미지로 어필해야 하는 청량화된 여가수 이미지와 코크와 랙 음악 장르가 지배적인 '여성' 음악 장르를 넘어서려는 트라이브 8의 신념과 그 신념이 섰던 한인 및 백색을 담고 있다. 카메라는 밴드 멤버 각각의 어린 시절, 노래를 한다는 것의 의미, 섹슈얼리티에 대한 생각, 여성으로서 각자에게 놓여진 남성의 한심에서의 생존 방식 등을 이들 밴드의 멤버와 여성 공동체로 어우러져 담아낸다. 그러면서 노동계급/여성/레즈비언이라는 주변인으로서 느끼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역설적으로 주변인이자 자신을 동일화하는 순간에 느끼는 자유와 용기를 무대 위에서 함께 폭발시킨다. 기존의 가부장제에서 권하는 '여성'을 '넘어서는' 자만이 가시화되며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영화. [서울영화제 홈페이지]

- 6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 위당관 B09호

영화 욕망을 영화화하기 : 여성감독이 말하는 섹슈얼리티

Filming Desire : A Journey Through Women's Film / Marie Mandy / 프랑스 / 2001 / 60분

★ 2001년 몬트리올 영화제, 2001년 프랑켄하우젠 여성영화제, 2002년 제4회 서울여성영화제 상영작

이 대담한 다큐멘터리에서 마리 만디 감독은 질문을 한다. '여성 감독들이 사랑, 욕망, 특히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영화화 하는가?' 설의 로터, 아리스 바르다, 카르린느 브레이아, 도리스 외레, 디아 에다, 제인 캠피온 등 현재 세계 곳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감독들의 친밀한 인터뷰를 만날 수 있는 작품. <욕망을 영화화하기> : 여성감독이 말하는 섹슈얼리티는 영화 제작에 있어 성의 정치학을 직접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여성 감독들은 자신의 작업들에서 가져온 물질들로 실재를 풀어 여성적 관점의 구체화, 여성적 영화 언어의 가능성,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된 영화 속의 욕망들에 대해 이야기 한다. 더불어 어떻게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그 관계를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술자하고, 익살스러우며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작품은 여성적 영화학, 섹슈얼리티, 신체의 이미지, 페미니스트 이론에 대한 주요한 견해를 선사할 것이다. [서울영화제 홈페이지]

- 6월 4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외솔관 110호

강연 욕망을 영화화하기 : 식민화와 해방의 힘 간의 전쟁터, 여성 섹슈얼리티

- 강연자 : 주유신(영화평론가, 서울여성영화제 프로그램)

- 6월 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외솔관 110호

※ 영화 상영후 강연 진행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www.yonsei.ac.kr/~system
2123-3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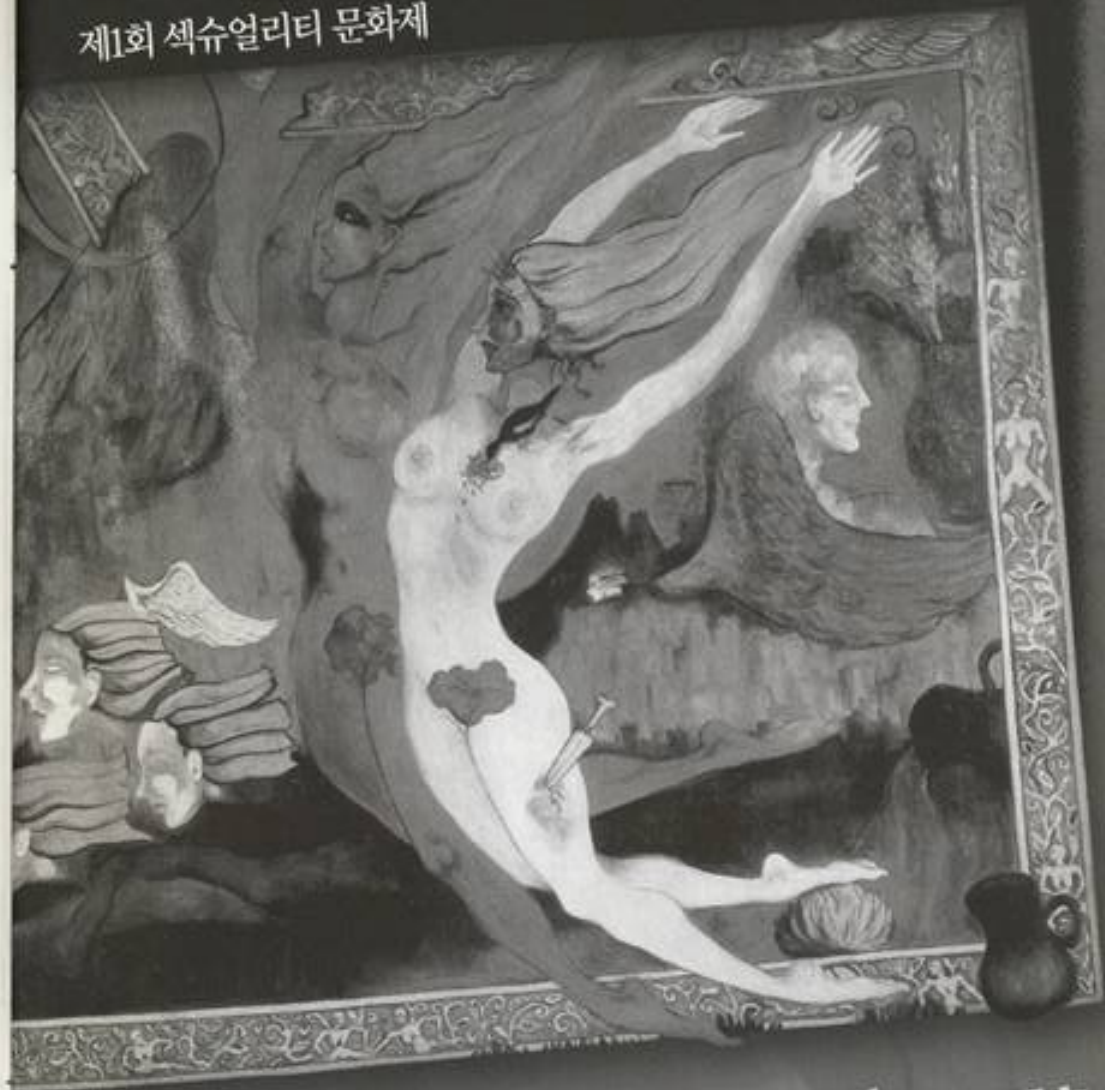


제1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여성, 욕망, 말하다

design women's des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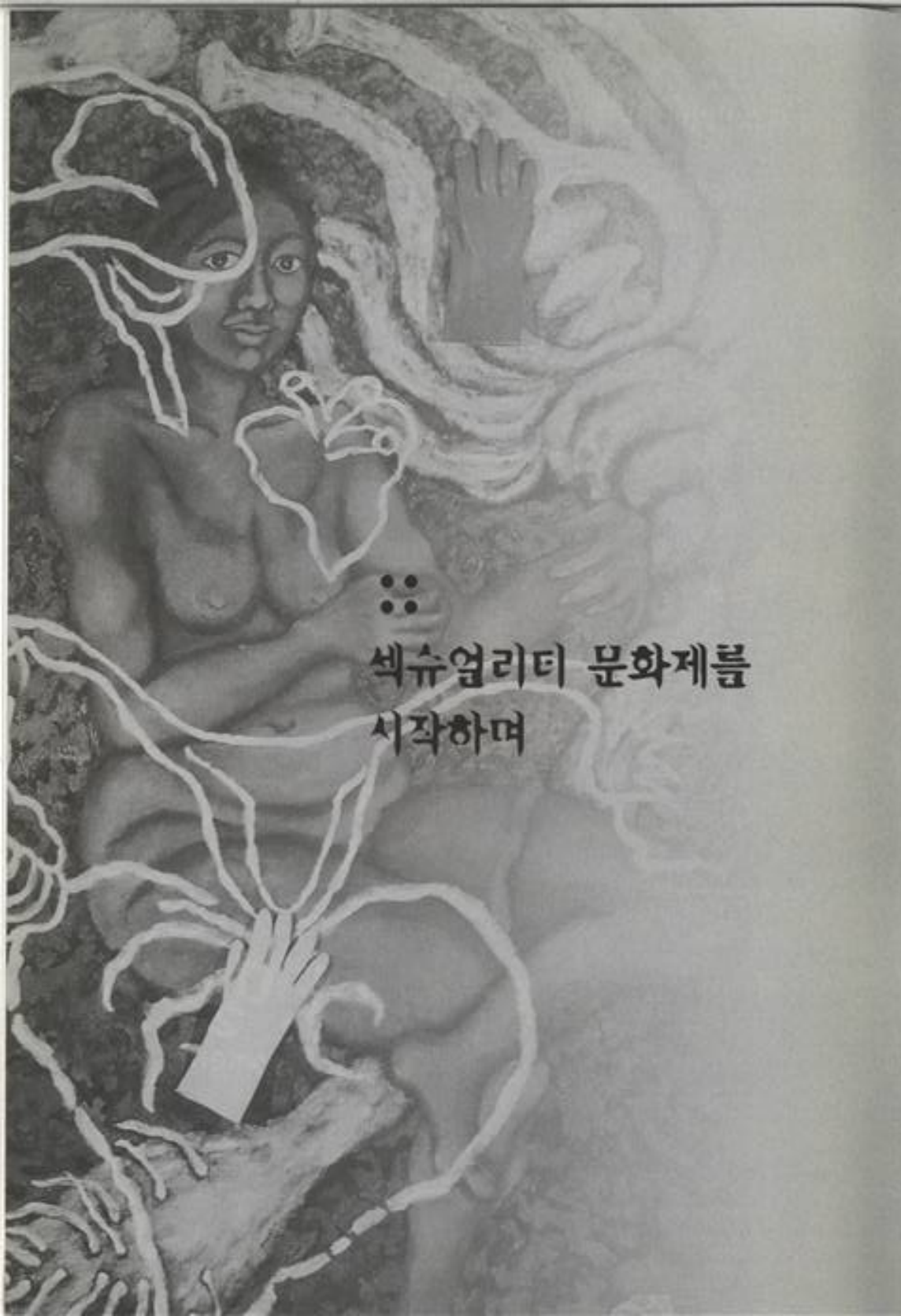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제 15대 총학생회
www.yonsei.ac.kr/~ysfem / feminist@yonsei.ac.kr



여성, 욕망, 말하다

design women's desire

- 02 _ 섹슈얼리티 문화제를 시작하며
- 04 _ 여성, 욕망, 말하다
- 06 _ 왜 또다시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 08 _ 여성이 욕망을 드러낸다는 것...
- 10 _ 성녀 아니면 창녀, 당신들의 이중규범
- 12 _ [영화 감상문] 분노를 터트려라! : 트라이브 8 밴드에 관한 타규멘터리
- 14 _ [강연] 욕망을 영화화하기 : 식민화와 해방의 힘 간의 전쟁터, 여성 섹슈얼리티



:: 섹슈얼리티 문화제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성은 무엇인가?

성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성은 기존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하지만 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금기시되어 있고 금기화된 상태에서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은 수없이 자행되었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남성중심주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별이데올로기, 이성애중심주의.. 이러한 관습적인 규정성으로부터 탈피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비정상이나 소수자란 이름이 붙여졌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은 단지 호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 소외를 가져왔다.

성별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성은 관습적인 형태로 재생산된다. 그리고 규정된 여성성은 모든 여성에게 강요된다. 여성은 여성으로 남아야만 하며, 자신의 몸에 대한 남성들의 성애화된 시선을 그대로 받아 안아야만 한다. 여성들이 이성애주의를 거부함으로써 파트너로서의 남성을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규정된 성애화된 이미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조차도, 이러한 여성들은 기존의 견고한 틀 속에서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위한 레즈비언 커플로서 여겨지거나 성폭력의 대상이 되곤 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여성의 소유로 안전하게 남아있지 못한다.

'여성다움의 신화'를 만들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소유하려는 시선에 저항한다. 그리고 여성은 자신의 몸 바라보는 시선의 주인이 되어야한다. 강요된 규정성의 틀은 사양한다.





...여성...

여성은, 있었다. 여성은 존재했고, 여성의 욕망은 실재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여성은 '그들'이었다.
남성들은 자신의 시각에서 재편되고 그려진 그 무언가에게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것은 여성이 아니었다.
단지 남성 욕망의 개체이자 대상으로서 만들어진 환상이며 허구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정상적이며, 옳은 것이라고 배워 왔기 때문에
누구도 여성이 스스로의 주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여성은 자신의 실재를, 또 자신의 실체를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낼 수 없었다.
여성은, 없/었/다.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

...욕망...



자신의 존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이에게 무언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타인에 의해서만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 욕망이란
현실 저편에 있는 미지의 것이었다.
여성들은 자신이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쓰다듬고, 자신의 몸이 들려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으므로,
타인의 눈과 귀와 입과 손으로 자신의 실재와 실체를 확인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무언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불온하고, 음란하고, 무서운 일이었다.
여성의 욕망은, 없/었/다.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

...말하다...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부재한다고 느끼는 자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남이 아닌, 남과는 다른 그 어떤 존재로 스스로를 정체화시키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 채 내뱉는 말들은 공허한 울림이 되어
허공을 떠돌 뿐이다.
말하는 것은 남성의 몫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여성들은 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었다.
그래서 자신들은 스스로의 욕망을 언어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로만 알았다.
여성에게, 여성의 욕망을 말한다는 것은, 없/었/다.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용감하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자신의 목을 더듬어 보았을 때,
여성들은 자신의 성대가 조용하게 울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스스로의 욕망을 말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권력일 수 없다는 것을. 여성으로서 자신을 정체화하고,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고,
그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격렬하게 외쳤다, "Rape me!" 라고,
또는 "Let's break the mirror!" 라고,
나는 분명 이 자리에서 존재하며, 나는 분명 무언가를 욕망하는 존재이고,
여성으로서 나의 욕망은 현재진행중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하였다.

이제, 우리는 욕망할 수 있으며, 욕망해야만 한다.
손발을 묶어매고 입과 귀를 틀어막는 모든 것들을 전복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욕망하면서, 그 세상에 대고, 크게 소리질러야 한다.

Design women's desire!!

Design women's desire!!

Design women's desire!!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입으로
여성의 귀로
욕망을 바라보고
말하고 듣고 싶다.

'욕망'이라는 단어를 어떤 이들은 한없이 섹슈얼한 코드로만 받아들이겠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끝없는 복잡함과 어려움으로 다가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내가 욕망하는 것이 정말 나의 욕망인가.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서 욕망은 무엇인가. 여성의 욕망에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과잉된 의미들을 해체시켜보지 않고서는 도대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는 '본능'이라고 말할 하지만 나의 섹슈얼리티와 나의 욕망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본능'의 목소리에 귀기울려도 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또다시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성해방'을 위해 애쓰시고 있다는 '박진영' 씨는 연세대는 콘돌이라고 이야기한다. 콘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라고 한 말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 남성의 정자분출과 동일시되면서, '콘일'이란 '남성의 일'이 되고 만다. 그

리고 이 남성들의 콘일을 도와주는 연세대학교는 남성들의 학교가 된다.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성'은 어디에 있을까? 콘돌이라도 사용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네라고 쓴웃음 지어야 하는 것일까? '박진영'이라는 한 가수(?)의 말 한마디에 심각하게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연세 내에서 '남성의 성'과 '욕망'은 넘쳐나고 있지만, 여성의 욕망에 대해서는 이야기 꺼내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여성도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안다.

여성이 욕망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성폭력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인줄 아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안다. 남성들이 주장하는 '성해방'에 여성은 더 억압적인 위치에 놓인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남성들이 규정해놓은 '조신한 여성'과 '해튼 여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여성의 욕망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자 한다. 여성의 다양한 욕망을 인정하는 것. 다양한 욕망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것을 소망한다.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입으로 여성의 귀로 욕망을 바라보고 말하고 듣고 싶다. 그렇게 자유롭게 욕망을 노래하고 싶은 것이다.



누구에게나 욕망은 존재한다.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그러나 이제까지 여성의 욕망, 특히 성적인 욕망은 철저히 통제되어 왔으며, 여성은 자신에게 욕망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실령 욕망을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며, 억누른 채 살아왔다. 이제까지 여성은, 자신의 욕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자(남성)의 욕망의 대상으로 존재해왔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한다. 여성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한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하는,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여성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곧 여성이 자신의 욕망의 주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결코 아니다. 여성이 스스로의 욕망을 드러낼수록 그 욕망은 또 다시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될 뿐이다. 무수한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만이 커질 뿐이다. 여성의 욕망은 결코, 있는 그대로의 욕망이라고 보이지도 이야기되지도 않는다.

그때, 속단이라고 말하려 하는가. 그러나 그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다.

한 여성이 있다. 그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고,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 그것은 욕망을 드러내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는 낙인 때문이었다. 그러던 그녀가 한 남성을 만났다. 그 남성이라면 자신의 욕망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와 관계를 가졌다.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음에 그녀는 기뻐하였다.

그러나 만남을 지속해 갈수록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였다. 심지어 그녀가 원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욕망이 아닌 상대방의 욕망에 '끌려가고' 있었다.

얼마 후, 그녀는 그 남성의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과 그와의 관계가 이야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자신이 그들 사이에서 포르노 영화의 여자 주인공처



럼 그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노와 수치심에 떨던 그녀는 그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대답은... "너도 그런 관계를 원했잖아"

과연 그녀가 원하던 것이 그런 것이었던가. 그의 욕망에 끌려가고,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그녀의 욕망이었고, 그녀의 의지였던가. 그는 결코 그녀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그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폭력으로 다가왔다. 자신의 욕망을 긍정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지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뿐이었다.

또다른 상황. 미니스커트를 즐겨 입는 여성이 있었다.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 그것이 그녀의 욕망이었다. 미니스커트를 입을 때마다 부모님은 한 마디씩 하신다. 스커트가 너무 짧은 것 아니냐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자신의 다리에 꽂히던 무수한 시선들, 고등학교 시절,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여성일수록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던 선생님... 부모님의 걱정은 괜한 노파심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원해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뿐인데, 그것은 타자의 시선 혹은 욕망의 대상이 되거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원인제공자로 비난을 받을 뿐이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의 욕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고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것, 여성의 주체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분명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과연 여성이 욕망의 주체로 설 수 있는가. 여성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가, 그것이 또 다시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에 우리는 언제쯤이면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성녀 아니면 창녀, 당신들의 이중규범



사람은 보통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여러 사람이 같은 그림을 보아도 내용에 기억하는 부분은 각각 다르고 같은 책을 읽어도 느끼는 물론 머리 속에 맺도는 내용도 각각 다르다. 보고 싶지 않은 부분, 혹은 아무런 자각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보이지도 않고 혹시 보였더라도 기억 속에서 쉽사리 잊혀진다.

보고 싶은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다. 이를 테면 배워서 알고 있는 것, 흥미가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그다지 큰 비판 없이 받아들여왔던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의 삶들, 이제의 이야기, 판타지를 좋아하는 경우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환경만 약간 변화가 있을 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갈등 구조는 현실과 별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가치관의 전복이 없는 이상, 아니 적어도 자신이 사는 세상을 수상쩍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과거가 배경이든 미래가 배경이든 판타지 세계가 배경이든 글을 구성하는 상상력은, 그리고 글

을 읽는 눈은 결코 현재의 가치관을 뛰어넘지 못한다.

보고 싶지 않은 것들, 익숙하지 않은 것들, 학습된 가치에 맞지 않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여성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렇게나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빠져있기라도 한 것인지 그들에게 여성은 더도 덜도 아니고 딱 두 가지다. 성녀, 아니면 창녀. 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의 이분법은 중세를 지나 근대가 되어도, 또 현대가 되어도 유서 깊은 전통인 양 이어져 내려왔다.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이분법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식의 이분법을 가지고 사냐고,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여성의 역사는 놀라우리만치 변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리스 여성의 삶을 조사해 보아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그 질긴 이분법의 찌꺼기들은 사람들의 머릿속

에 숨어서 나올 기회만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다.

나의 중학교 동창 하나는 '여자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 라며 - 집에서 어머니가 식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혼 여성은 여성이 아니란 말인가?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환상을 마음껏 펼쳐 보이고 혼자서 좌절하는가 하면-왜냐하면, 여성들도 인간인 이상 당연히 물 이외의 것을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 또 다른 동창은 '여자들이 더 밝힌다'며 자신이 섭렵한 각종 음란물에서 얻은 근거를 이야기한다. 그 음란물에는 수줍은 척 하다가 강간당할 때마저 쾌락에 몸부림치는 여성,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는 성욕 밖에 없어 보이는 레즈비언 등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사람들이 가진 온갖 편견으로 점철돼 있는 왜곡된 여성상이 난무한다. 예전부터 '낮에는 정숙한 아내, 밤에는 요부'를 원한다는 남성들의 공공연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요즘처럼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대에는 특히 성모 마리아 보다는 막달라 마리아에 손을 들어주는 쪽이 많은가 보다. '내용 별지 마, 너희는 사실 우리보다 더 밝히잖아!'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세상에 단 두 명의 여성 밖에 살고 있지 않은 듯이, 그들에게 여성은 성모 마리아인 양 내용을 떨고 있지만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인 존재이다. 여성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들의 그 사고 체계에서 재해석되어 비춰진다. 그들은 여성이 그들과는 관계없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애초부터 이해

낮에는 정숙한 아내, 밤에는 요부'를 원한다는 남성들의 공공연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요즘처럼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대에는 특히 성모 마리아 보다는 막달라 마리아에 손을 들어주는 쪽이 많은가 보다. '내용 별지 마, 너희는 사실 우리보다 더 밝히잖아!'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세상에 다양한 성격과 취향을 가진 남성들이 존재하듯이 그들이 정해놓은 이분법 사이에, 그리고 바깥에 셀 수 없이 많은 성향을 가진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도 그들의 질박한 의식의 찌꺼기 속에는 뿌리내리지 못한다.

인간 평등사상이 등장했을 때 그렇다면 여성도 인간인가? 라는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그 때락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자명하다. 지금, 여성이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줄로 안다. 그렇지만 정말로 여성은 인간일까?

그들은 여성이 인간이라는 의미를 알고나 있을까? 그들이 말하는 '모든' 인간이 가진 특성을 여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굳이 '여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야만 여성의 권리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는 지,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인간' 개념은 여전히 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무시하고 여성을 함부로 두 부류로 묶어 넣으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분노를 터뜨려라!

Tribe 8에 관한 다큐멘터리
- Rise above : The Tribe 8 Documentary



- by 달리

여성영화제 예매를 위해 상영 목록을 검색하다가 제일 먼저 예매를 확정지었던 영화가 바로 이 다큐멘터리였다. 그것은

1. 여성밴드에 대한 다큐멘터리, 특히 레즈비언들로만 구성된 여성 '핑크' 록 밴드였다는 것
2. S/M이라는,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재를 밴드의 주된 퍼포먼스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 그리고
3. 딜도 퍼포먼스에 대한 거부감 섞인 호기심 때문이었다.

지난 몇 년간 아마추어 밴드와 합지라도, 여성들을 재즈나 소풍 담당 혹은 키보드 피크업의 마이너 악기를 다루는 하찮은 존재들로 치부하는 남성 중심의 질서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존재함을 보아온 나는 음악계에 있어서 여성 뮤지션들의 위치는 지독하게도 위태로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성이 뽀빠 악기를 다루고 전문적으로 음악을 한다는 이야기가 돌리는 순간 남성뮤지션들에게 가해지는 것과는 다른, 끊임없는 비교와 호기심어린 눈초리들이 더해진다. 특히나 그것이 일렉 악기와 같은 아주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영역인 경우엔 더더욱.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여성 뮤지션의 계보를 만들어 간다고 평가받는 예니 드 프랑코와 같은 (흥룡하다 흥룡한) 포크 뮤지션들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는 여성 핑크 밴드의 존재는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어떤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걸까? 연주 실력은 어떨까? 온갖 의문들을 참으며 좌석에 앉은 나는 몇 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입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여자들이 있었다니 5명의 여성들이 맘에 흥복 젖어 마이크를, 기타를, 드럼을 부서자라 두드려대는 모습은 신선하다 못해 경이로운 그 자체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대단하다.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한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한 연주 실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 솔직하고 당당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성-레즈비언-노동계층-성폭력 피해자-마약중독자-S/M의 상징코드를 지닌 소수자 중의 소수자인 그들은 스스로의 소수자성을 '적나라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이를 오히려 넘어서는 폭발적인 '멋' 역사가 사회에 가한다. 남성-남근 중심의 사회에서 이렇듯한 존재인 그들의 힘은 아이러니하게도 주류로부터의 이렇듯 존재라는 그 사실 자체에서 나온다. 이를 통해 그들은, '기존의 가부장제에서 권하는 '여성'을 '넘어서는' 자만이 가시화되어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1. 그녀들의 옷 벗기

대중 앞에서 옷을 벗는 행위, 특히 여성이 옷을 벗는 행위는 이 사회 안에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대다수 이상에서 남성들의 성적 만족감의 대상 그리고 음란행위로서의 처벌대상이 그것이다. 전자는 물론 정숙해야 할 여성 신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역사의

산물인 후자는 모두 남성의 시선이 전제가 된 해석의 방식이다. 보잘간 리이 말했듯이 '남자를 흥요라고 벗는 건 되지만, 다워서 벗는 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들의 옷 벗기는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남성적 시선에 대한 반발이며, 대다수 여성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메시지이다. 그녀들이 영화 초반부에 밝혔듯, 그녀들의 관심은 여성이지 남성이 아니다. 색시해보일 생각은 전혀 없는, 남성들은 인종에도 없는 그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옷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들이 옷을 벗은 동기는 사실 단순하다. 내가 더 우니까, 내 몸이 힘을 식히기를 원하니까 옷을 벗는다. 이는 여성들이 택한 처방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남성과 국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스스로의 몸에 대한 결정권의 획득이기 때문이다. 그녀들의 지독하게 '자연스러운' naked 연주는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Tribe 8의 여성들이 보여주는 벗은 몸은 '내' 몸이다.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는, 멋있게 느껴지면 문신도 하고 피어싱도 할 수 있는,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는 '내' 몸인 것이다.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여성의 몸이 있음을 보여주며, 그들은 남성들의 시선을 조롱한다. 그리고 동시에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 획득의 의미를 온 몸으로 보여준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몸의 의미(물론 자신들의 메시지를 암묵하게 해석하는 남성들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엿을 먹인다. 옷을 안 벗기로).

2. 딜도+S/M 퍼포먼스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나는 딜도에 거부감이 있고 S/M에 대해서 대다수 그러하다. 전자는 남성 성기 중심적인 연모가 보이기 때문에 후자는 동의와 합의의 개념을 쓴 폭력적 권력관계의 한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성애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남성성(masculinity)의 폭력적 속성은 자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Tribe 8의 퍼포먼스는 나의 이러한 굳건한 믿음에 큰 균열을 가져왔다. 여성의 신체에 덧붙여진 남성성의 상징들은 내가 우려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레즈비언 여성이 남성 성기를 몸에 달고 노래를 하면서, 관객 중 한 남성을 불러내어 그 딜도를 함께 한다. 이는 언뜻 보서는 대다수의 남성 핑크 록 밴드가 보여주는 헐리웃 스타일의 '헐리웃적' 퍼포먼스에 차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들의 살의 경험은 그녀들이 결코 맹목적으로, 딜도로 표상되는 남성성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거세천가를 부르는 딜도를 칼로 찔러버리는 행위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육체적 폭력, 성적 학대, 그리고 강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자해를 이러한(우스운) 질문에 대해,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며 과보를 거라고, 연인과 동성 어떤 대답들을 할 것이다. 그녀들은 '피해자'이고 '피해자'라면 고통스런 기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이기도 그에 따른 괴로움 속에 빠져 자살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Tribe 8의 그녀들은 대다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의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 억지로 힘을 내는 것에도 또 다른 태도이다. 그녀들의 태도에서 억지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경험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과거의 경험들을 특별 내뱉으며 농담을 던지는 그녀들에게서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불쌍한 피해자 여성의 모습은 볼 수 없다.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아 보여 보는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내공 쌓인 그녀들이 있을 뿐이다. S/M과 함께 하는 딜도 퍼포먼스는 남성의 전부라고 생각되는 신체부위인 페니스를 필요에 따라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유동적인 존재로 그려내 페니스에 과도하게 부여된 의미를 무너뜨린다. 페니스는 붙였다 떼었다, 여성인 자신도 가질 수 있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데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성성의 상징이 여성의 신체에 덧붙여졌으므로 이제껏 과도하게 부여되어왔던 의미들에 균열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들의 이러한 페니스-여성에게 강간을 할 수 있는 권력의 집착체-에 대한 비웃음은 거세천가를 부르는 페니스를 찔러버리는 장면에서 극에 달한다. 이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그녀들의 관심의 대상인 여성들에게는 카타르시스로 다가오며 대다수 (상대적) 피해자인 남성들에게는 하나의 경고로 다가온다.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피해의 기억을 적극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남성들에게는 자신의 페니스가 자인 상징성을 깨닫게 하는 과정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딜도 퍼포먼스는 Tribe 8의 몇 가닥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를 넘어서는(rise above)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녀가 그녀에게

결국 이러한 Tribe 8의 공연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녀들이 그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기 때문이다. Tribe 8은 자기 자유적 그리고 극복적 성격의 공연을 통해 자신들과 같은 여성들에게 더 이상 주류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고통 받지 말고 이야기한다. 남성 중심의 기준들이 이야기하는 고통과 자해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준에 부합할 필요가 없는 주체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주체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이제껏 자신을 억압해 왔던 페니스를 이용해서 조롱하고 가치 잡힐 수 있게 된다. 미움을 넘어선 무관심이다. 동시에 이러한 Tribe 8의 성격에 자질을 표하는 여성들이 있음을 확인하며 Tribe 8은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관객들의 반응은 그녀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옳음을 확인하는 하나의 것 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결국 퍼포먼스란, 공연이란 무대위의 사람과 무대 밖의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공감대의 형성이기 때문이다.

<욕망을 영화화하기>

식민화와 해방의 힘 간의 전쟁터, 여성 섹슈얼리티

주 유 신 (영화평론가, 서울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1. 여성의 성적 주체성, 과연 가능한가?

성은 흔히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것으로 혐해되기도 하지만, 근대적 주체가 지닌 자아의 핵심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또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외적인 부가물과 의미가 가장 많이 더해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성은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으로, 정치적이기보다는 심리적인 것으로, 역사적이기보다는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어떻게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성은 점차 인간의 존재 양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하나의 범주이자 가장 논쟁적인 주제로 자리잡게 된다.

'성'은 성적 행위는 물론이고 성적 욕망과 환상, 성적 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동시에 여성성/남성성과 같은 젠더 개념 역시 전제한다. 젠더 문제가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별화된 형태로 주어지고 또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회는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에 입각해서 여남의 섹슈얼리티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라본다. 즉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원래가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면 여성의 경우에는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것으로 상정되면서, 여남의 섹슈얼리티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것으로 설명될 뿐만 아니라 그 에로티시즘 역시 이미 불평등한 것으로 구조화된다. 따라서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성별과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결코 성별중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인 동시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방식의 억압, 차별, 구속을 보이지 않게 매개하는 장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적, 일부일체제 사회는 젠더의 특권에 기반한 사회이자 결혼 및 가족제도와 생식이 '성적 정상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이어지는 사회로서, 가진 것 없는 여성, 결혼하지 않은 여성, 아이를 안/못낳는 여성, 남성을 사랑하지 않는 여성 등을 끝

없이 차별하고 비난하거나 비가시화시킨다. 또한 성에 대한 수많은 대중적 이미지거나 사회적, 개인적 상상력은 철저하게 '성기중심적'이자 '이성애중심적'이다. 즉 성은 젠더 이분법이라는 틀 내에서만 작동하는 '섹스'로 이해되고, '탄남-접촉-사정'으로 이어지는 목적론적인 서사로서만 형상화되기 때문이다.

이성에 커를 관계는 이런 다양한 성 담론이 성적 실천을 증재하고 성적 지식을 생산하는 지점이다. 남성은 성공적인 위치짓기를 위해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할 뿐 깊이 빠져드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여성은 남성과 관계 맺고 남성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성은 이성애적 연애관계에서는 열등한 타자가, 이성애적 섹스에서는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

따라서 '여성의 성적 주체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여성의 성적 쾌락과 성적 표현의 욕망을 어떻게 회복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즉 여성의 성적 주체화와 자유는 기존의 억압으로부터 여성의 성적 욕망을 구원해내는 일이자 이를 새로운 형태로 조직하여 표현해내는 문제인 것이다.

2. 영화와 여성의 섹슈얼리티, 그 결합의 관계성

재현은 주체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재현의 역사는 자신을 자신에게 재현하는 남성의 역사이고 문화는 바로 가부장제의 자기 이미지이다. 즉 문화적, 역사적 시각에서 보자면 주체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남성 전체'이다. 남성은 문화의 창조자로서 여성에 관하여 목소리를 내고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써온 것이다.

영화는 그 탄생에서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 중의 하나인 '관음증', 즉 타인을 훑쳐보는 데에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도착적 충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시선을 통해서 타인을 지배하고 종속시키고자 하는 충동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학증'에 입각한 서사구조로 이어진다. 따라서 거의 모든 영화들에서 남성은 시선의 주체이자 서사의 능동적 작인(agency)이라면, 반면에 여성은 시선의 대상(즉 이미지이자 스펙타클)이자 서사 내의 수동적 위치를 부여받는다.

이것은 영화를 구조화하는 원리 자체가 성차별주의적이고, 영화 내에서 펼쳐지는 행위와 환상들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의 욕망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영화 속에서 여성들은 과도한 폭력의 대상 아니면 남성이 주도하는 구원의 대상이 되고, 성적으로 순결한 존재 아니면 과잉된 성욕의 주체가 되며, 비극적인 희생자 아니면 위험한 위반자라는 식으로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재현된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성에 대하여 남성들이 갖고 있는 모순된 욕망의 결과이자, 여성의 성과 육체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착취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인 두려움 또는 혐오감'에 휩싸인 남성들의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때 수많은 개별 영화들과 특정한 영화장르는 여성에 대해서 섹슈얼리티가 갖고 있는 이런 식의 불편하고 억압적인 특성을 가장 통속적이면서도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내는 영역이 된다.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성해방의 혁명성'을 주창하면서 사회에서 허용되거나 배제되는 성의 경계를 심문하는 영화들 역시 대부분 남성적 욕망의 근원을 탐문하고, 여기에서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욕망과 환상을 펼쳐보이기 위한 조건과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여성의 욕체를 철저히 대상화시키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이라는 것을 끈질기게 불완전하거나 문제적인 것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영화 속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묘사들은 섹슈얼리티, 특히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모순성과 긴장감을 드러내게 된다. 여성의 성과 욕체에 대한 완고하고 전통적인 통념들과 반여성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들이 여전히 영화 텍스트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텍스트의 이면과 그 결들 속에서는 이것들이 지니고 있는 모순되고 불일치하는 지점들이 폭로되면서 또 도전받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과 관련된 이런 질서와 통념을 역전시켜서, 여성이 여성의 욕망에 대해 말한다면 무엇이 달라지고 이는 페미니즘 성정치학이라는 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 특히 여성 감독들은 여성의 사랑, 욕망,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영화 속에서 이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그것은 여성의 몸을 전시하고 소비하게끔 하는 기존의 영화들과는 얼마나 다른 것일까?



마리 멘디 감독의 〈욕망을 영화화하기 Filming Desire〉는 온갖 언어들이 덧쓰여진 여성의 욕체 이미지들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대신한다.

제인 캠피온, 샬리 포트, 아네스 바르다, 까뜨린느 브레이야, 도리스 되리, 무피다 플라플리, 디파 메다 등의 세계적인 여성 감독들은 그것은 차이를 갖고 있다고 답한다. 이들은 자신의 작업 실례를 들어 여성적 관점의 구체화, 여성적 영화언어의 가능성, 새로운 이미지를 통한 여성 욕망의 표현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떻게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그 관계를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이들의 발언은 솔직하고 대담하며 때로는 익살스럽기까지 하다. 이들의 영화에서 여성의 몸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주체이다. 여성 스스로 욕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는 그 영화들을 가위질하거나 상영금지시켰지만, 금기시되었던 이미지들은 이 작품 속에서 되살아나 당당하게 여성의 새로운 시선을 입증하고 있다.